데스크 시각

생활인구 급증한 담양군을 보라

김대성
전남서부·중부·전북 취재부장

담양에 거주인구의 8배가 넘는 사람이 머문다고 한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이 쑥쑥 자라고 있는 것이다. '우후죽순'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셈인데 반가운 소식이다. 지역소멸위기 속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행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 나온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어떤 정책이 어떻게 시행돼 이 같은 성과를 이끌었는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주목하는 이유다. 인구 5만명도 안되는 작은 고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생활인구 42만 명으로 전남 1위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생활인구 자료에 따르면 담양군의 생활인구는 42만 4087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4만 4842명의 약 8.3배에 달했다. 이는 전남 16개 인구소멸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군은 2분기에도 41만 9946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8.1배를 기록하며 2분기와 3분기 연속 전남 인구 감소 시·군 중 생활인구 수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생활인구의 85.8%가 외부 지역 거주자로 방문객의 꾸준한 유입이 지역 활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다. 생활인구는 월 1회 이상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한 인구를 포함해 경제·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담양의 지역 활성화 전략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양군이 생활인구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인프라의 성공적 구축에 있다.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봄 대나무축제, 겨울 산타축제 등 계절별 콘텐츠는 성수기와 비수기 간 방문객 격차를 줄이고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1읍면 1축제' 정책을 통해 금성면의 고비산 산벚꽃축제, 가사문학면의 찰옥수수 축제, 월산면의 용구산 들꽃축제 등 지역 고유의 색을 살린 행사가 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에도 성과를 냈다.

여기에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탁월한 지리적 입지도 담양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몫했다.

담양군은 앞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당일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숙박시설 확충과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체험형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대폭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다.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에 설치된 감각적인 야간 조명과 문화·자연이 어우러진 야행 프로그램은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체류 연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는 상권 활성화와 농산물 직거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청년 창업 붐으로 확산했다. 젊은 세대가 운영하는 특색 있는 카페와 공방은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지역 경제 다각화에 힘을 보탠 것이다.

이 외에도 담양군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그동안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총 269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3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했다.

올해부터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한 정책 변화는 담양군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군은 확보한 재원을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소멸 대응 성공 모델로 우뚝

군은 또 출생기본수당을 비롯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77개 사업, 2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시행 첫해 모금액 전국 1위를 달성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지역 관계 인구의 지속적인 기부와 한우, 방울토마토 등 지역 특산품과 담양온천 이용권, 텃밭 분양권 등 차별화된 답례품을 제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5월 개원을 앞둔 국립정원문화원과 군민생활체육공원, 반다비 체육센터, 담양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확충,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통한 야간관광 공간 조성 등이 완료되면 생활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생활인구 40만명 시대라는 지역 활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생활인구 증가는 단순한 방문객 수치 이상의 의미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인구의 8배를 웃도는 생활인구가 유입되며 관광이 곧 지역의 일상과 경제를 살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담양군의 사례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이제 관광이 아니더라도 음식, 문화·예술,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생활인구 확보와 증가를 위한 묘안과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은펜칼럼

노란 동백꽃을 떠올리는 이유는

김창균
광주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이맘때면 다시 돌아보게 되는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의 한 구절이다. 점순이와의 아찔한 사랑이 알싸한 동백꽃 향기로 이어지는 장면이 눈에 선하지만 노란 동백꽃을 떠올리는 데는 소설의 문화적 배경과 강원도 사투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 고장의 동백꽃 씨앗은 머릿기름 재료로도 사용되는데 동백이 자라지 않는 중북부 지역에서는 생강나무 열매로 대신하다 보니 이름까지 따라간 것이다. 생강나무는 잘라낸 가지나 꽃에서 생강 향기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니 소설을 읽을 때 붉은 동백꽃이 아니라 봄철 산중 바위틈에서 올망졸망 피어난 노란 생강나무꽃을 떠올려야 알싸하면서도 향긋한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터이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와 관습을 담아내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어휘와 문법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정체성과 맥락에 대한 이해와도 맞닿아 있다. 평화롭고 단란했던 고향집 정경을 그린 정지용의 시 '향수'에 나오는 '얼룩백이 황소'도 그렇다.

얼룩백이(표준어는 얼룩빼기)하면 하양과 검정이 섞인 젖소가 아닌가 싶은데 검정 줄무늬가 얼루룩덜루룩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칡소'를 일컫는다. 황소도 노란색을 띤 소가 아니다. 작은 수소를 가리키는 부룩소의 상대어로, 크다는 뜻의 '한'이 붙은 '한소'가 황소로 변한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젖소와 누렁소의 이질적인 조합에 의문은 당연하다. 그런데 무심히 넘기는 순간 우리 전통의 정경,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있는 커다란 수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풍경은 정녕 사라지고 만다.

몇 년 전 어느 방송에서는 "괴발개발에 등장하는 개를 제외한 동물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 정답을 맞힌 시민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을 일컫는 우리말이 '괴발개발'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해석만 놓고 보면 고양이의 옛말이 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린 개'를 뜻하는 말이 강아지이듯이 고양이는 '어린 괴'를 지칭했다. 역사적 변화를 거쳐 괴의 자리를 고양이가 차지하게 되니 정작 현재에 와서는 '어린 고양이'를 가리키는 말은 없는 불균형 상태가 된 마당이다.

산기슭의 괴불나무나 들판의 괴불주머니에나마 흔적을 남긴 '괴'를 놓치게 되니, '개발새발'이 버젓이 '표준국어대사전'에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이라고 2010년에 등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은 개와 새라는 표기에 이끌려 개와 새의 발로 언중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단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언어가 사용자 중심의 통신 규약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시대가 흘러 사람이 바뀌고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 약속도 변하게 마련이다. 더욱이 작금의 디지털 문해력 시대에는 변화가 가속화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언어는 우리의 삶을 담고 시간을 건너뛰어 고유의 기억을 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역사의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를 극복하며 생존하는 유기체와도 같은 존재가 언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문학 작품을 그 나라의 언어로 감상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문화와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세계적인 작품에 담긴 감정과 사고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이를 온전히 세계화하고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에 담긴 문화적 정체성과 맥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승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문해력은 단어나 문맥의 의미를 전체적 맥락 속에서 정확히 이해하려는 정성에서 출발함을 기억해야 한다. 사흘이 4일이라든가 '심심한 사과'에 진정성을 못 느낀다는 부류의 목소리가 얘깃거리가 되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기 고

심각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근절 대책

이동범
수필가·교육칼럼니스트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편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악용하여 사회적으로 충격과 물의를 일으켜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최근 심각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되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보안 서비스 업체인 시큐리티히어로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이었다고 한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피의자의 연령대는 무려 73%가 10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볼 수 있다. 잇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 자료에는 2021년부터 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 영상물 피해자의 연령대가 10대가 60%, 20대가 32%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허위 영상물 피해의 미성년자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피의자 또한 1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처벌이 약해서'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처벌 형량이 약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범죄를 행하고 있다고 본다.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 형량 강화와 함께 가해자 인식을 바로잡을 대책도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가해자 처벌 형량을 현행보다 올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해야 한다. 딥페이크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저장과 시청 행위까지도 엄격하게 처벌하여 수요와 공급을 모두 없애야 한다.

둘째, 피해자 보호에도 힘써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 처벌 강화 같은 사후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과 근절 대책 또한 중요하다.

셋째, 가해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했던 잘못을 정확히 알려주는 등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과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짜와 가짜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상황 속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유해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과 국가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신뢰하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社 說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수출길 막힌 태평염전

100만평 규모로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인 신안 태평염전의 미국 수출길이 막혔다. 과거 사회문제가 됐던 '염전노예 사건' 때문인데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인도보류명령은 수출금지 명령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됐다. 수출 물량은 1억원 수준인 연간 7~8톤에 불과하지만 전남산은 물론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할 수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CBP가 문제를 삼은 것은 202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다. 임대사업자 한 명이 2014년부터 7년간 장애인 노동자를 감금하고 3억 4000만원의 임금을 착취해 사법처리된 사건으로, 국내 공익단체가 2022년 10월 CBP측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수입 중단을 요청한 것이 이번 조치로 이어졌다. 전남도는 사건 이후 다각적인 조치로 지금은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익단체가 수 차례 국제사회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해 화를 키웠다.

더구나 신안 염전노예 문제는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2021년에는 영국 방송의 탐사보도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현장조사가 있었지만 이후 관계당국의 조치는 미흡했다.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있으면 제품을 불매하는 것이 지구촌의 트렌드가 된 지 오래다. 전남도와 해수부 등 관계당국은 CBP를 상대로 인도보류명령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다른 분야에도 인권침해 노동 현장은 없는지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

백신 접종·관리 부실로 구제역 방역 참사 확인

91년만에 영암 등 전남 서남권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구제역 청정 전남'이란 명성을 잃게 된 배경에는 백신 접종과 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일보는 최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출하 직전 소들에 대한 백신 접종 기피 의혹을 제기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농림부는 영암군의 구제역 확산 원인을 백신 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 때문으로 진단했다. 구제역 발생농장의 일부 한우에서만 항체 양성이 나온 점으로 미뤄 모든 한우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도 일부 한우는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가들은 출하 시기(32개월)를 앞두고 최대한 비싸게 팔기 위해 소의 체중을 불리는데 백신을 접종할 경우 스트레스로 체중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실제 농림부 조사에서도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출하 직전의 소만 따로 항체형성률을 조사해 보니 12.5%에 그쳤다.

관리 소홀도 심각해 농장 출입구에 차량 차단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차량이 농장을 드나들 때 소독도 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도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가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의 소독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전남의 구제역 사태는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방역 참사다. 농가에 백신 접종을 맡기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구제역 예방이 불가능하다. 공중보건수의사를 모든 축산농가에 투입해 직접 접종하게 하거나 적어도 공무원들이 백신 접종 현장을 지켜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는 공중보건수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종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력 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로도 해결책은 있다.

無 等 鼓

'국민 위로곡'으로 불리는 노래가 있다. 길을 걷다가도,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실 때도, 버스에서 들리는 라디오에서도 이 노래가 나오면 눈물을 흘린다는 이들이 많다. 가수 황가람이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2020년 발표된 인디밴드 중식이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황가람이 자신의 음색과 감성으로 재해석해 다시 부른 곡이다. 2024년 10월 발매됐을 당시에는 큰 반응이 없다가 이후 입소문과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12월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20년 무명을 딛고 노래 한곡으로 차트 1위를 차지한 황가람 가수의 인생 스토리도 한 몫 거들었다.

'나는 반딧불'에는 메시지가 주는 힘이 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따라 나가자는 희망과 용기를 준다. "힘들어도 괜찮아" "너는 빛나는 존재야" 담담하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는 학업에, 취업 준비에, 육아에, 직장생활에 지친 이들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든다. 메시지 한 줄 한 줄이 주는 힘은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청년들에게는 아직 희망을 잃지 말자는 위로가 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30~40대에게는 잠시 멈추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줬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50~70대에게는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고 다독여주기도 한다.

'나는 반딧불'

노래의 흥행은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계엄, 탄핵, 갈등까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사회적으로도 피로감이 누적된 시기였다. 불안과 떨림의 일상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노래의 등장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몸으로 빛을 발하는 반딧불이의 역할과도 맞닿았다. 눈부시진 않지만 꺼지지 않는 빛.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노래임이 분명하다.

"나는 반딧불입니다. 당신도 반딧불입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미래가 막막해도,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